

(주)성아테크, 창립 30주년 기념식

“30년 발자취 되새기며 새로운 30년 창조하자”



(주)성아테크 전 임직원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중국 항저우시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힘찬 재도약을 다짐했다.

(주)성아테크(대표이사 정해돈)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중국 항저우시에서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일정은 중국 항저우, 소주, 상해 등을 돌며 창립 30주년 기념식과 창조 프로세스 강연, 창립부터 현재까지의 회사 운영과 관련된 동영상 시청 등의 기념행사와 상해 임시정부 청사 견학 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상해 임시정부 청사는 우리

나라 독립을 위한 선조들의 투쟁을 잊지 않기 위해 특별히 선정된 것이다.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정해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기지만 전 직원의 기를 살리고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중국에서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게 됐다”고 강조하며 “중국 대륙의 힘찬 기운을 받아서 전 직원이 힘을 모으고 재도약의 원천으로

삼자”고 강조했다.

정해돈 회장은 또 “모 회계사가 우리나라는 45만개의 법인이 있는데 이 중 5%가 30년 이상 생존하고 여기서 다시 5%가 외부감사를 받는다. 성아테크는 외부감사를 받으니 마지막 5%에 드는 기업이라고 말했다”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건설회사가 무너지는 와중에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는 성아테크이기에 임직원들은 자긍심을 가져도 좋다”고 강조했다.

정해돈 회장은 또 임직원들에게 하나의 일화를 소개했다.

“IMF 때 성아도 최대의 위기를 맞았었다. 여러 종합건설사의 부도로 성아도 많은 부도를 맞았는데 그 중 모 회사에서 아주 크게 맞았다.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의 큰 액수였다. 나는 모 회사의 회장님을 찾아갔다. 회장님께 ‘기계설비를 하고 있는 정해돈입니다. 차 한잔 마시러 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꼭 재기하십시오’라는 말을 하고는 차 한잔 마시고 왔다. 일주일 뒤 모 회사 회장님께서 부르셨다. 가보니 회장님께서 ‘부도나자 여기저기서 돈달라는 아우성 뿐이었다. 그런데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찾아와서 돈 이야기는 커녕 오히려 나에게 건강 조심하라는 말까지 해주고 돌아서는 모습이 너무도 당당하고 흔들림이 없어서 충격을 받았다. 그 이후로 나는 불편증이 걸려서 잠을 못 잤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제대로 죽지 못할 것 같았다. 그래서 성아의 현장을 점검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하면서 부도 맞은 것보다 더 많은 계약을 해줬다. 최대의 위

기를 우리는 그렇게 넘겼다. 그 때를 생각해 보면 신이 도와주신 것 같다. 그 때 나는 사심없이 하는 행동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소개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 직원은 “순수한 마음을 전했던 것이 결국 미래를 바꾸게 했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앞으로는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다.

정해돈 회장은 지식경제 사회 속에서 성아테크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전 직원들의 인문학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IGM 창조클럽으로부터 ‘중소기업형 맞춤 창조 프로세스’ 강연을 들었다. 이 강연을 계기로 성아테크는 새해부터 일주일에 한번씩 전 직원들에게 글로벌 트렌드, 창조경영, 미래전략 수립, 경영에센스, 감성과소통, 인문학 등의 온·오프라인 강연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사옥 사무실을 2층에서 3층까지 확장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마련했다.

오피소 전무는 “이번 해외연수를 통해 성아를 이끌어갈 미래 인재들이 친밀도를 높임으로써 더욱 단합하게 됐다”면서 “향후 미국 LA에 있는 현지 법인의 알라바마 공사가 본격화 되면 직원들에게 미국견학 기회부여 등 지속성장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아테크 사우회는 30주년을 기념하여 그동안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잘 이끌어온 정해돈 회장에게 감사의 뜻으로 금거북이를 선물했다. 🐢